

# 꺾직한 세계대회 잇단 개최...광주, 국제스포츠도시 발돋움

### 2025세계양궁대회 유치 의미

### 유니버시아드·세계수영대회

### 민선 7기 들어 잇따라 개최

### 페퍼스 배구단 광주 유치 성공

### 시민 체육시설도 대폭 확충

광주시가 민선 7기들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스포츠 도시의 위상을 굳히고 있다. 2019 세계수영대회 성공 개최, 2025세계양궁대회 유치에 이어 2038 아시안게임 유치전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특히 올 들어 대표 동계 스포츠인 여자 프로 배구까지 유치하면서 '사시사철' 수준 높은 프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도시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 도심 곳곳에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생활 체육 시설을 대거 확충하는 등 국제 스포츠 도시의 품격을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제양궁연맹은 5일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대회 개최지를 보잉에 따라 오는 2038년 아시안게임 유치 전망도 밝히자고 있다. 광주는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등 각종 세계대회를 '저비용·고효율' 운영 방식을 도입해 성공적으로 치러낸 점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시는 이 같이 탄탄한 스포츠 인프라 등을 기

반으로 대구와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한때 '동서갈등'을 상징했던 광주와 대구의 이번 도전이 결실을 본다면, 스포츠 도시로서 명성은 물론 지역갈등 해소를 상징하는 역사적 이벤트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시는 국제대회 유치 노력과 함께 '시민이 편(fun)한' 도시 구축을 목표로 지역 내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광주시는 특히 올해 창단예정이었던 여자프로 배구단 페퍼저축은행의 연고지 경쟁에서 광주 유치가 성공했고, 동계스포츠 불모지란 오명을 벗어 던졌다.

페퍼저축은행 배구단은 광주시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주력하는 점 등에 착안해 팀명을 'AI 페퍼스'로 정하는 등 재미에 의미를 더한 스포츠 주변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시는 국제 스포츠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시민이 직접 즐길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 건립에도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는 국비 공모 등으로 확보한 1894억원을 들여 14개 공공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있으며, 한국수영진흥센터(2024년 완공 예정)와 서부권역 노인복지시설 내 체육센터(2023년)를 제외한 12곳은 내년이던 완공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구와 북구에 건립 중인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에게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체육 시설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영국 스포츠마케팅 연구소 '스포츠칼'은 2019년 기준 광주를 국제 스포츠 영향력 세계 27위, 아시아 6위로 평가하기도 했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사시사철 스포츠를 즐기는 매력과 열정이 넘치는 문화체육 도시 광주를 목표로, 스포츠 인프라 조성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소상공인 만난 이재명 “정부 지출 쥐꼬리...전폭 지원 필요”

### 코로나 민생정책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6일 민생·개혁 행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음식·미용·귀금속제조·의류드매 등 업종의 소상공인 8명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 국민 선대위' 회의에 초청해 민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코로나 방역 강화와 관련해 "어떤 조치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며 "오히려 평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쥐꼬리"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가 되면 이런 식으로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도 '손실보상 50조원' 발언과 관련해 "지금 당장 지원방안 협의에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를 꾀하는 동시에 코로나 방역과 손실보상이라는 민생 이슈의 주도권을 빼앗음으로써 윤 후보 측의 '좌클릭'에 맞서 중도 공략 싸움의 우위에 서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조동원 이슈'를 완전히 매듭짓고 애초 계획대로 정책 행보에 집중함으로써 본격적인 인물 경쟁에 들어가겠다는 전략도 담겼다.

선대위 현관택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조 전 상임선대위원장 측이 전날 과거의 성폭력 피해 사례를 밝힌 것과 관련해 "논란을 계속 하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도 상처"라며 "중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여성의 사생활에 관심을 갖고 일종의 집단적 2차 가해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인천의료원 음압병동 현장을 방문, 코로나 대응 현장 인력들의 목소리를 듣고, 오미크론 바이러스 대응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오는 7일에는 중소기업 관련 일정 등을 계획하고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민생 우선주의 정책과 민생 중심 선거운동을 계속 전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문 대통령 “재택치료 추가지원 검토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재택치료 대상인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생활지원비 외에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확진자 동거인이 출근을 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피해가 발생할 때 생활지원비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추가 대책을 강구하라고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고 의료대응체계를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재택치료자의 가족 등 동거인은 10일간 외출이 금지되는 불편을 겪어야 하는 데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정부는 이 외의 지원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철저한 역학조사를 위해 지원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등 전폭적인 역학조사 지원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총리는 "재택치료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

고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재택치료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전담 인력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정부 부처의 장관이 방역 책임관을 맡고, 소관 시설에 대해서는 국장급 전담관을 지정해 방역 수칙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총리는 주례회동 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총리는 "해외 입국 과정에서부터 검역망을 보강해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의 1차 관문인 인천공항부터 어떤 바이러스 유입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대선 다자대결, 윤석열 41.2%·이재명 37.9%

### KSOI 조사... 격차 크게 줄어

### 리얼미터는尹 44%·李 37.5%

다자대결 구도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간 격차가 소폭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305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묻은 결과 윤 후보는 전주 대비 2.3%포인트 낮아진 44.0%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전주보다 0.6%포인트 오

른 37.5%를 받았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6.5%포인트다. 전주 격차인 9.4%포인트보다는 좁혀진 모습이지만,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 밖 흐름은 유지했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3.8%,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3.2%로 뒤를 이었다. 당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윤 후보 47.3%, 이 후보 43.3%를 각각 기록했다.

같은 날 공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지지율 여론조사(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 대상)에서는 윤 후보가 41.2%, 이 후보는 37.9%를 각각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3.3%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안이었다.

전주 조사와 비교했을 때 윤 후보는 0.6%포인트, 이 후보는 1.1%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다만 이 후보는 20대 지지율이 전주보다 2.1%포인트 오른 반면, 윤 후보는 13.6%포인트나 떨어진 점이 두드러졌다. 반면 윤 후보는 50대에서 전주보다 5.3%포인트, 60대에서 3.3%포인트 각각 올랐다.

한편,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지지율)는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40.5%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3주차 조사 이후 6주만에 40%대 지지율을 회복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계 열        | 모 집 단 위  |           | 모 집 인 원   |  |
|------------|--|-----------|-----------|--|
|            | 학 과  | 수 시       | 정 시       |  |
| 인 문 사 회    | 신 학 과  | 30        | 15        |  |
|            | 한국어교육학과<br>목지상담융합학부<br>(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명생교육상담학 전공) | 2         | 2         |  |
| 사 범        | 유아교육과  | 31        | 3         |  |
| 예 능        | 음악학부   | 7         | 3         |  |
|            |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 23        | 6         |  |
| <b>총 계</b> |  | <b>93</b> | <b>29</b> |  |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